

AIDS NEWS

에이즈환자에 물려 최초로 감염

한 슬로베니아인이 에이즈 환자인 이웃사람에게 물려 HIV에 감염됐다고 의사들이 전했다.

슬로베니아공화국 류블라나시의 전염병 담당의사인 루드빅 비드마르는 의학잡지 '랜싯'에 보낸 기고문에서 동성연애자인 47세의 한 남자 에이즈 환자가 이웃에 도움을 청하러 가서 발작을 일으키자 이웃사람은 그가 에이즈 환자인줄 모르고 입안에 손을 넣어 혀가 말려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다 손톱이 물려 감염됐다고 전했다.

비드마르는 당시 에이즈 환자는 발작 과정에서 자신의 혀를 깨물어 타액에 피가 배어 있었으며 사건 후 13일만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손톱이 물린 이웃사람은 결혼한 지 23년된 53세의 남자로 즉각 감염을 막기 위해 AZT(에이즈치료약)가 투여됐으나 33일 후 유행성 감기 비슷한 증세를 보였고 결국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비드마르는 "이번 사건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사람의 입에 물려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마도 환자의 타액에 있던 피가 감염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 로이터=聯合)

전세계 HIV감염자 총 2천 550여만명

에이즈가 15년전 처음 발견된 이래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천 5백50여만명에 달하며 이들중 4백50만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유엔의 에이즈 퇴치운동기구인 '유엔에이즈'는 이날 공개한 통계자료에서 이에 따라 현재 전세계에서 15세에서 49세까지의 남녀 2천1백만명이 HIV에 감염되어있거나 이미 에이즈로 진행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엔 에이즈'는 남녀별로는 여성이 감염자들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로 성생활이 문란한 백인들이 걸리는 에이즈를 '동성애 병'이라고 비난했다.

이 통계는 지금까지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4백50만명으로 집계됐으나 보고 지연이나 부정확한 보고, 의료혜택 미비 등을 감안하면 희생자는 7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파리 AFP=聯合)

에이즈 亞지역 경제성장 둔화요인

에이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앞으로 투자, 생산 및 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보건비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한 연구보고서가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주로 생산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집단에 미치는 에이즈의 선별적인 충격은 경제성장의 둔화뿐만 아니라 경제구조를 바꾸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징후로 보아 아시아국가들도 같은 길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오는 2000년까지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의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지난 92~93년중 새로운 환자는 태국에서 4배, 미얀마에서 3배, 그리고 인도에서 2배 증가했다고 IFPRI는 밝혔다. (워싱턴 AFP=聯合)

AIDS NEWS

美FDA 의료종사자 에이즈치료 건의

美연방정부는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HIV에 노출된 의료종사자들이 AZT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받을 것을 처음으로 건의했다.

美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의 연구 결과 항바이러스성 치료는 근무중 HIV에 감염된 혈액에 노출된 의사와 간호사 및 그밖의 의료종사자들 사이에서 에이즈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 CDC는 HIV에 노출된 의료종사자들에게 1차 치료로 지도부딘과 이아미부딘 등 두가지 약의 사용을 건의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CDC는 또 위험성이 높은 노출의 경우에는 제3의 약 인디나비를 혼용하도록 건의했다.

CDC의 한 관계자는 직업적인 HIV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의료종사자들이 불가피하게

HIV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애틀란타 로이터=聯合)

멕시코 에이즈감염자 낙태허용 검토 年 500명 임신...낙태허부 본인 결정

멕시코 의회는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나타난 여성에게 낙태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정부의 한 보건관리자가 말했다.

멕시코에서는 일반적으로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거나 여성의 생명이 임신으로 위태로워진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가 한해 약 5백건에 이른다. (멕시코시티 AFP=聯合)

여성용콘돔 '없어 못판다' 10만개 보급 - 수입목표 90만개 앞당겨 도입

약국에서 판매 개시된 여성용 콘돔이 재고가 달릴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제약업체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국제약품이 영국의 차택스사로부터 독점 수입, 전국의 약국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여성용 콘돔 페미돔이 지난 20일새 10만개가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용 콘돔의 소비자가격은 3개들이 1갑에 6천6백원으로 1개당 2천2백원에 달해 남성용에 비해 10배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잘 팔리고 있는 것은 갱년기를 맞아 성생활이 원활치 못한 중년여성이나 특수직업

종사자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여성용 콘돔의 경우 남성용과 달리 고무가 아닌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져 냄새가 거의 없고 착용감이 좋아 호기심이 많은 신세대 여성들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 약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聯合)

캐나다 인공수정용 기증 정자 관리 강화

캐나다 정부는 인공 수정을 위해 정자 은행에 제공된 정자는 기증받은 후 6개월 이내에는 사용하지못하게 하는 등 기증 정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정자은행은 기증자가 에이즈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돼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 다음 정자를 채취해 6개월간 냉동 보관한 뒤 정자기증자에 대해 다시 질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두차례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다음에만 기증 정자를 인공수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캐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정자은행의 정자로 인공수정 받은 한 여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데 뒤이어 취해진 것이다. (오타와 AFP=聯合)

캐나다 안락사 에이즈사망자 20%선

많은 캐나다 의사들이 환자의 안락사를 도와주고 있다고 죽을권리협회가 말했다.

죽을권리협회의 존 호프세스 회장은 온 토론토의 한 의사가 자신의 환자



AIDS NEWS

중 한 사람에게 안락사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뒤 이같이 말했다.

안락사를 도와주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죽을권리협회는 최근 몇년동안 에이즈로 죽은 사람의 약 20%가 대체로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밴쿠버 AFP=聯合)

면역세포 자극하면 HIV 급속증가

체내의 면역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에이즈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진다는 사실이 새로 입증됐다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말했다.

미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의 연구팀은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감염된 13명의 환자의 면역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테타누스 접종을 했을 때 환자들의 혈액내 바이러스 세포의 양이 급속히 증가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탠리박사는 HIV는 사람들의 면역체계가 기생충과 다른 미생물들에 의해 꾸준히 도전받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더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스턴 UPI=聯合)

FDA '가정용' 에이즈 검진기 승인

美식품의약국(FDA)은 HIV를 탐지하기 위한 최초의 '가정용' 검진기를 승인했다.

론티이드 HIV 테스트링 서비스로 불리는 이 검진기는 존슨&존슨사의 자회사인 다이렉트 액세스 다이어그노스틱스사에 의해 개발돼 시판된다.

신 검진기는 가정용 혈액채취기,

실험실에서의 HIV-1 항체 실험, 그리고 익명으로 검진결과를 통보받고 자문과 치료 병원들을 소개받게 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 체계로 돼 있다.

제조회사측은 검진기 가격이 약 40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 UPI=聯合)

구강검사로 에이즈 감염여부 밝힌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에 자신이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으나 혈액검사를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구강 검사를 통해 감염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美식품의약국(FDA)은 HIV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새로운 두가지의 검사방법을 승인했다.

그중 하나는 "오라슈어 방법"으로 불과 잇몸 사이에 특수 처리된 패드를 삽입하여 주변 조직에 존재하는 HIV항체를 뽑아내 검사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타액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액보다도 많은 바이러스 항체가 포함된 경구점액여출물(OMT)이라는 액체 샘플을 검사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FDA는 또 이와함께 '앰플리코 HIV-1 모니터'라는 검사법을 승인했다. 이것은 몸속에 들어있는 HIV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의사들은 그 양을 보고 이 병이 얼마나 빨리 진전될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다. (워싱턴 AP.AFP=聯合)

HIV감염 창구역할 CD4 단백질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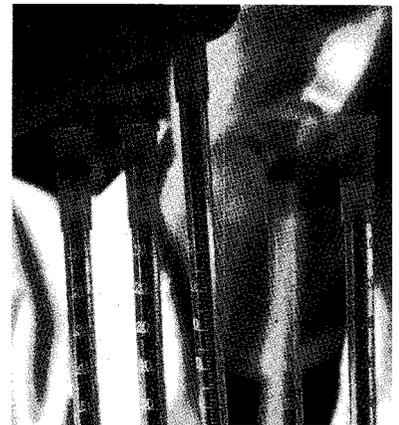
HIV가 인체에 감염되는 데는 CD4라는 명칭의 단백질이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질병감염연구소가 최근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HIV가 인체의 면역체인 백혈구의 임파구 T에 진입하는데는 이 CD4 단백질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백질은 임파구 T의 표면에서 HIV를 받아들이는 '공동 수용체'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공동수용체'는 근래 일부 에이즈 감염자가 상당기간중 무증후증상을 보임에 따라 그 존재가 추정돼왔다. (파리=聯合)

「에이즈바이러스 잠식세포」 대량증식

HIV에 대항하는 CD4T 세포를 크게 증식시키는 방법이 개발돼 에이즈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미국해군의학연구소(NMRC)의 칼준 박사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험관 실험을 통해 인체 면역체계내에 있는



CD4T 세포의 수를 8천배까지 증식시켜 HIV를 크게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존 박사는 CD4T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은 HIV와 싸울 수 있는 「탄약」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0명의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로이터=연합)

태국서 HIV억제 효과적인 약초 발견

태국의 우림에서 발견되는 두가지 약초의 추출물이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HIV의 작용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부가 말했다. 이 약초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 관리는 4년간의 실험결과 이 약초들이 HIV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다면서 이 약초들이 HIV를 가진 사람들의 생명을 최소한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방콕 AP=연합)

FDA 새 에이즈치료제 네비라핀 승인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뇌링거제약회사가 새로 개발한 에이즈치료제 네비라핀을 승인했다.

FDA는 그러나 네비라핀은 AZT, ddI 등 기존의 에이즈치료제와 혼합 투여해야만 한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네비라핀을 단독투여할 경우 HIV의 내성과 변이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비라핀은 AZT-ddI와 함께 투여할 경우 환자의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고 혈액을 타고 도는 HIV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 AP=연합)

HIV침투 새 세포단백질 수용체 발견

HIV를 인체 세포가 받아들이도록 작용하는 새로운 세포 단백질 분자수용체가 최근 발견돼 에이즈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치료법 발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에이즈 전문가들이 밝혔다.

지금까지 HIV가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CD4 수용체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분자 수용체인 CC-CKR-5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내 단백질에서 발견된 이 분자수용체는 외부의 세균 침투시 혈액의 활성화 촉진작용을 하는 케모킨의 기능을 억제하면서 HIV 침투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케모킨은 HIV의 수용체 접근을 막

음으로써 혈액 세포내 HIV 침투를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케모킨의 이같은 작용에서 앞으로 HIV의 수용체 접근을 막는 치료법이 개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런던 AP·로이터=연합)

